

동구, ‘동명동 브랜드 타운’ 만든다…상권 활성화 기대

중기부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 선정
상인·청년 사업가 협업 모델 육성

광주시 동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동구 동명동을 ‘동명 브랜드 타운’으로 만든다.

동명동 상인, 청년 창업가가 상권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협업 모델로, 향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제도권 내에서 장기적으로 동명동 상권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구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광주 동명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는 서울, 경기 평택시, 전남 강진군 등 총 16곳이 이름을 올렸다.

먼저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추진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은 총 사업비 280만원을 투입,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업을 유도하고 자생력 있는 골목 상권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명 상권 공동 브랜드 및 홍보 강화’ 사업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113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역형 골목상권 육성 프로젝트다.

동구는 동명동 골목형 상점가에 통일된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상인과 방문객들의 인터뷰를 모은 아카이빙 북을 발간한다. 이외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결합한 종합 홍보 방안을 수립한다.

골목상권 상인회 고유 브랜드를 개발해 플랫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BI)를 확립, 상권 전체의 통일성을 가다듬겠다는 복안이다.



2022년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열렸던 ‘커피 산책’ 행사 모습

〈광주시 동구 제공〉

일성을 가다듬겠다는 복안이다.

각 매장 입구에는 안내판을 부착해 방문객이 상권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릿스(짧은 영상) 등 홍보 콘텐츠도 SNS를 통해 알린다.

5월~11월 진행하는 ‘동명크루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 사업은 골목 리더 역할을 맡는 ‘동명 크루’를 모집,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총 예산은 390만원이다.

동구는 동명크루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계획도 세우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이해 및 동명동 상권 비전 ▲로컬 브랜딩과 스토리텔링 기초 ▲QSC 기반 고객경험(CX) 설계 ▲로컬 디지털 마케팅&SNS 활용 ▲소상공인 맞춤형 회계, 노무관리 팁 ▲사업 모델 다각화와 투자 유치 전략 등을 교육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향후 지속 가능한 ‘동명 브랜드 타운’ 조성을 목표로 광주 우수 상권 육성사업과 연계도 추진한다. 동명신생상인회와 상권관리회사를 중심으로 동명동 창업 정보를 교환, 지역을 신규 창업 브랜드의 파일럿 운영지로 ‘개척’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생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 동명동 상권 디렉팅을 도맡는 조직도 키워 나갈 전망이다. 이외에도 동구는 동명공동체 상생협의체와 상생 협력을 통해 ‘동명동’에 걸맞는 의제 발굴부터 사업 확장을 모색한다.

먼저 동명동 갈등 사례를 조사한 뒤, 마을 현실에 맞는 동명공동상생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구 임대인-임차인 갈등, 주차장 문제, 임대료 안정을 위한 상생계약, 깨끗한 동명동 조성을 위한 환경운동 등을 추진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남구, ‘인문학 밤 산책’ 강연…22일부터 구립도서관

매월 넷째주 화요일과 둘째 주 금요일, 광주시 남구에서 ‘인문학 밤 산책’ 강연이 열린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오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남구 구립도서관에서 ‘인문학 밤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연은 총 8차례 진행된다. 먼저 오는 22일 열리는 첫 번째 강단에는 박준영 변호사가 오른다.

박 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의 주인공으로, ‘공존-사건의 배경과 이면’이라는 주제로 남구 주민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5월 9일에는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 ‘위를 봐요’ 저자인 정진호 작가가 강단에 선다. 정 작가는 어린이날 시기에 맞춰 특별히 아이들과 눈높이에 맞춘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6월 24일에는 과학 분야 전문가인 객석식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지식과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7월 22일에는

는 옥효진 협천 초등학교 교사가 ‘돈은 어떻게 벌까요?’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오는 8월 26일과 9월 23일에는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이 각각 ‘세종 시대 인재 등용’과 ‘그래도 우리는 지구에 살아 남아야 한다’에 대해 강연한다.

이밖에 조숙경 한국에너지공대 교수(10월 28일)와 김형석 전남대 의대 법의학 교수(11월 25일)도 강단에 올라 ‘과학, 내 인생이 말을 걸다’, ‘죽은 자의 권리와 산 자의 책임’ 등 주제로 강의를 한다.

남구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를 만날 한 차례씩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면서 “화차별 참가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들께서는 남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수시로 노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구, 18일까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광주시 서구가 오는 18일까지 올 상반기 ‘사회적경제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카데미는 마을 BI(Brand Identity), 문화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회적경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아카데미는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서구 마북동)에서 오는 25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사회적경제 기업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을 위한 심화 교육, 선배 기업가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아카데미 과정 이후 참여자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책도 제공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마을공동체-마을활동가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주민 2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062-360-7166)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mrhappy@korea.kr)으로 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산구, ‘에콜리안 광산CC’ 7월부터 직영체제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기 이관 협약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해 왔던 광주시 광산구의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광산구 직영체제로 전환된다.

16일 광산구는 9홀 규모의 공공편의 체육시설로 조성된 ‘에콜리안 광산CC’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조기 이관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에콜리안 광산CC는 지난 2011년 광산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각각 130억원, 137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골프장으로, 소유권은 광산구가 갖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31년까지 운영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광산구는 조기 이관을 조건으로 국민체육공단의 전체 투자비 137억 가운데 미회수금 75억원을 향후 6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기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콜리안 광산CC는 광주 도심 인근으로 광주 송정역에서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 골프 매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운영 수입 및 전 동카트 수입 등으로 매년 13억여원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조기 이관에 따른 재정적 수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지난 2023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국민체육진흥공단측과 협의를 통해 이번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첫 개장하면서 발생했던 손실금 5억여원에 대해서도 공단의 운영 책임으로 이번 협약을 유리하게 이끌어 냈다는게 광산구 설명이다.

광산구는 이번 조기 이관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7월 전까지 홈페이지 구축, 관련 조례 제정, 시설물 정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광산C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인재 육성, 구민 골프교실 운영, 골프 무료레슨,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CC는 시민에게 건강한 일상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시설”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15일부터 30일까지 골프장 새 이름 및 구호(슬로건)를 공모, 직관성과 대중성, 독창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2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친구 추천 이벤트…선착순 800명

광주시 북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친구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 북구는 15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북구사랑 서포터즈의 추천으로 북구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와 추천자 모두에게 GS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하고 있다.

기한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선착순으로 800여 명을 지원한다. 이벤트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 내 북구에 고향사랑 기부를 10만원 이상 한 뒤, 사례품 신청 시 배송 메시지에 추천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상품권은 담당자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발송될 예정이다.

이벤트 종료 후 가장 많은 추천 실적을 기록한

추천왕 3명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자치과(☎062-410-6719)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이벤트는 추천자와 기부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사랑 서포터즈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을 위해 지난해 발족해 4월 현재 회원 수 5만 명을 돌파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문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